

현안과 과제

- 최근 산업경기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
- 소프트웨어에서 더블딥으로의 진행가능성 차단에 주력

< 요약 >

■ 최근 거시 경제의 모습

2014년에 들어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정체되는 소프트패치(soft patch) 국면의 모습이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성장률) 전기비 기준 경제성장률은 2013년 3분기 이후 둔화되는 모습이다.(2013년 3분기 1.1% 이후 4분기와 2014년 1분기에 모두 0.9%로 둔화) 또한 전년동기비 기준 경제성장률도 기저효과로 상승하고는 있으나 그 상승폭이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2013년 1~2분기에 0.6%p, 2013년 2~3분기에 0.7%p, 2013년 3~4분기에 0.3%p, 2013년 4~2014년 1분기에 0.2%p) 특히, 2014년 1분기의 경제 성장에 대한 수요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수출은 지난 4분기 수준과 비슷한 기여도를 보이나, 내수는 소비 기여도가 급감하고 투자가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부침 현상이 관찰된다.

(경기종합지수) 2014년에 들어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지수가 하락하고 있다. 경기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올해 1월 이후 3월까지 100.7p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경기 전환점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마저 1월 101.6p를 정점으로 2월 101.5p, 3월 101.2p로 하락하는 모습이다.

(경제심리지수) 가계와 기업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과 경제 심리를 나타내주는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모두 개선세가 취약한 모습이다.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109p에서 2월에 108p로 하락한 이후 4월까지 횡보중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3월 80p를 정점으로 4월과 5월에 79p에 그치고 있다.

■ 최근 산업경기의 주요 특징

(경기 회복 견인 산업의 실종) 미시적인 측면에서 경기 상황을 살펴보면, 첫째, 과거의 경기 회복 국면과 달리 현재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산업이 없다. 2000년 이후 8순환기 경기 확장국면(2001년 3분기~2002년 4분기)과 9순환기의 경기 확장국면(2005년 2분기~2006년 2분기)에는 각각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전반적인 경기 회복을 견인하였다. 그러나 최근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모두 낮은 생산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어느 산업도 뚜렷한 견인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제를 선도하는 제조업의 경우 재고는 늘고 출하가 정체되는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중이다.

(수출 산업의 부진) 둘째, 내수 산업인 서비스업 생산은 큰 변화가 없는 가운데 수출 산업인 제조업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상 제조업의 변동성이 서비스업보다 높은 특성을 가지는 데, 2001년 이후만 보더라도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생산 증가율 평균치는 제조업이 5.7%로 서비스업의 3.7%보다 2%p가 높았다. 그러나 2012년 2분기 이후 최근까지 2년 동안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4%로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평균치 1.4%보다 1%p가 낮은 수준을 보인다. 특히, 제조업 내에서도 수출 출하 증가율이 내수 출하 증가율을 하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IT 산업의 경기 선도력 약화) 셋째, ICT 제조업 경기가 非ICT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악화되었다. 2012년 4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는 ICT제조업 생산증가율이 非ICT제조업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2013년 4분기와 2014년 1분기에 들어서는 非ICT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ICT제조업 생산은 감소세를 지속중이다. 특히, ICT 산업의 수출증가율은 2월과 3월의 8%대에서 4월에 4.5%로 전체 수출 증가율인 9%에 미치지 못하며 수출 경기마저도 선도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서비스업 부문에서도 2013년 2분기 이후(4분기 제외) ICT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전체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공공수요 산업의 민간수요 산업 경기 견인력 미약) 넷째, 공공 부문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민간 부문 수요로의 파급이 제한되고 있다. 서비스업은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공공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2013년 하반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4%대를 지속중이다. 반면, 민간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3% 내외로 여전히 공공 부문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건설업에 있어서도 공공부문 수주가 크게 늘어난 반면 민간 부문은 부진한 모습이다. 또한 제조업의 경우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도 민간 부문 발주가 공공 부문 발주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입 확대가 국내 산업 경기 회복을 제약) 다섯째,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수입(재화 및 서비스)이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수입침투율)은 2014년 1분기 55.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산-수입산 간 대체가 용이한 소비재의 수입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 시사점

(시사점) 수출이 대외 여건의 악화로 경제 전반의 회복을 선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향후 내수 부문마저 침체될 경우 경기 부진 정도가 소프트패치(soft patch)를 넘어 더블딥(double dip)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대응 방안) 이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첫째,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적극 펼쳐야 한다. 통화정책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정정책에서는 내수 경기 회복력 강화 및 원화 강세 약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기 집행률 제고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소비 및 투자 확대를 도모하여 내수 회복세를 강화시켜야 한다. 국내 소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내수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특히 경기 회복의 핵심인 투자 촉진을 위해 관련 규제 개혁을 가속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환율 안정에 주력하여 수출 경기를 확장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 투기자금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을 가동하여 원화 강세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할 것이다. 특히, 기업이 환율 변화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주기 위하여 외환시장에 대한 변동성 완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1. 최근 거시 경제의 모습

○ 2014년 1분기에 들어 전반적인 경기 회복세가 정체되는 소프트패치(soft patch) 국면의 모습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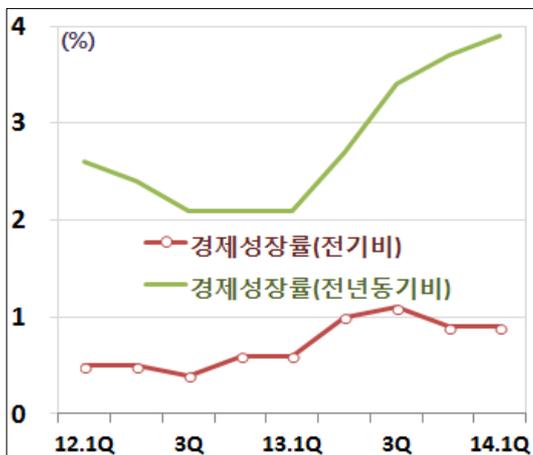
- 소프트패치란 경기 회복 국면에서 경기 확장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거나 침체되는 현상을 의미

- 한편, 더블딥(double dip)은 경기가 회복 국면 경로에서 이탈하여 다시 경기 저점을 형성하는 경기재침체를 의미함
- 따라서 소프트패치는 여전히 경기 회복세가 유효한 상황이지만 더블딥은 경기가 회복력 자체를 상실하는 국면으로 해석됨

- 최근 경제성장세가 크게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내수와 외수가 모두 부진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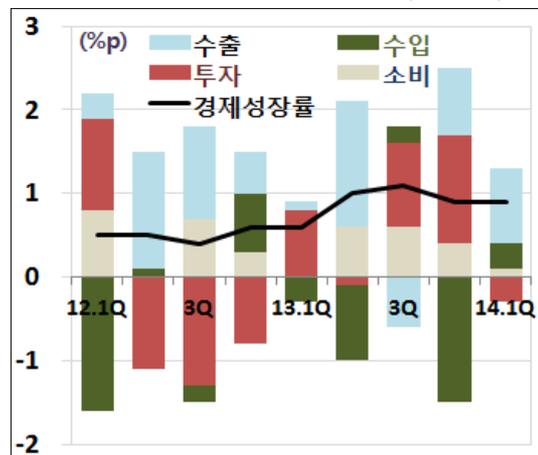
- 전년동기비 기준 경제성장률은 2013년 1분기 2.1%를 저점으로 2014년 1분기 3.9%에 이를 때까지 상승 추세를 지속하였으나,
- 그 증가폭은 2013년 1~2분기에 0.6%p, 2013년 2~3분기에 0.7%p, 2013년 3~4분기에 0.3%p, 2013년 4~2014년 1분기에 0.2%p로 빠르게 축소됨
- 한편, 전기비 기준 경제성장률은 2013년 3분기 1.1% 이후 4분기와 2014년 1분기에 모두 0.9%로 둔화되는 모습임

< 분기별 경제성장률 >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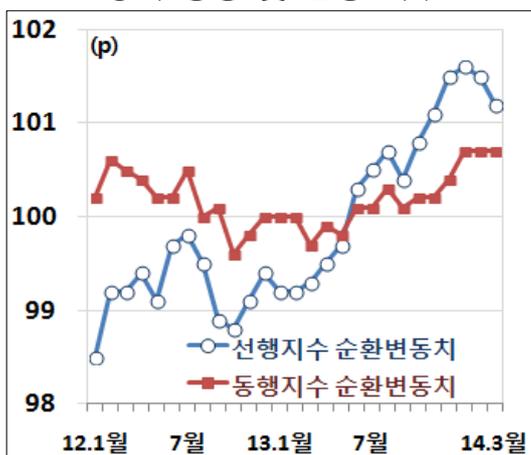
< 수요 부문별 경제성장 기여도(전기비)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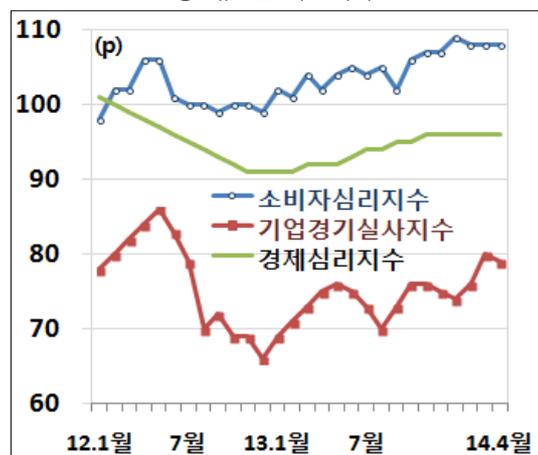
- 2014년 1분기의 경제 성장에 대한 수요 부문별 기여도를 보면 수출은 4분기의 기여 정도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 소비의 기여도가 급감하고 투자가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내수 부문의 부침 현상이 발생함
- 2014년에 들어 경기 동행지수와 선행지수가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지수가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
- 경기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14년 1월 이후 3월까지 100.7p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 향후 경기 전환점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마저 1월 101.6p를 정점으로 2월 101.5p, 3월 101.2p로 하락하는 모습임
- 가계와 기업의 향후 경제 상황에 대한 전망과 경제 심리를 나타내 주는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경기실사지수 모두 개선세가 취약한 모습
- 소비자심리지수는 1월 109p에서 2월에 108p로 하락한 이후 4월까지 횡보하는 모습임
 - 기업경기실사지수는 3월 80p를 정점으로 4월과 5월에 79p에 그침
 - 기업경기실사지수(BSI)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4월 경제심리지수(ESI; 순환변동치)는 2013년 11월 이후 2014년 5월까지 96p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경제 심리 지수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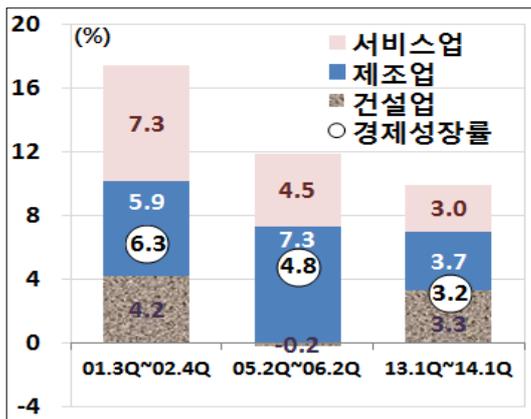
주 : 경제심리지수는 순환변동치 기준

2. 최근 산업경기의 주요 특징

○ 경기 회복 견인 산업의 실종

- 과거의 경기 회복 국면과 달리 현재 경기 회복을 주도하는 산업이 부재
 - 제 8순환기의 경기 확장국면(2001년 3분기~2002년 4분기)에는 이례적으로 서비스업이 회복을 주도함(서비스업 분기평균 생산증가율 7.3%)
 - 제 9순환기의 경기 확장국면(2005년 2분기~2006년 2분기)의 경우 제조업이 회복을 견인함(제조업 분기평균 생산증가율 7.3%)
 - 그러나 최근의 경우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모두 낮은 생산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어느 산업도 뚜렷한 회복 견인력을 보이지 못함
- 특히, 한국경제를 선도하는 제조업의 경우 재고는 늘고 출하가 정체되는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
 - 제조업의 출하증가율은 2013년 4분기 전년동기대비 1.9%에서 2014년 1분기에 0.2%로 크게 하락한 반면, 재고증가율은 같은 기간 5.0%에서 7.6%로 상승함
 - 이에 따라 제조업은 재고-출하 사이클상 여전히 경기 부진 국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 경기 회복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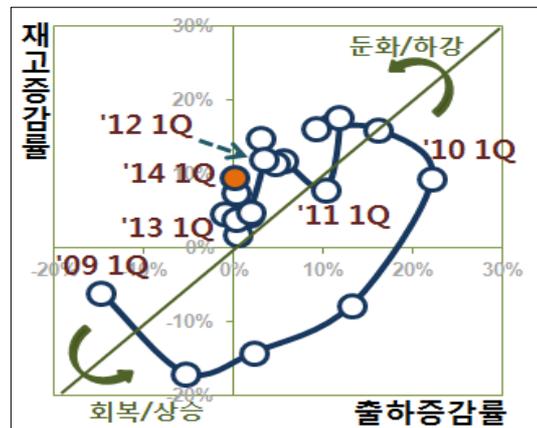
< 경기회복기 주요 산업별 생산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 각 기간은 경기 회복기를 의미하며 그 기준은 통계청의 경기순환기의 기준순환일상 경기 저점 직후 5분기 동안으로 특정함.

< 제조업 재고-출하 사이클 >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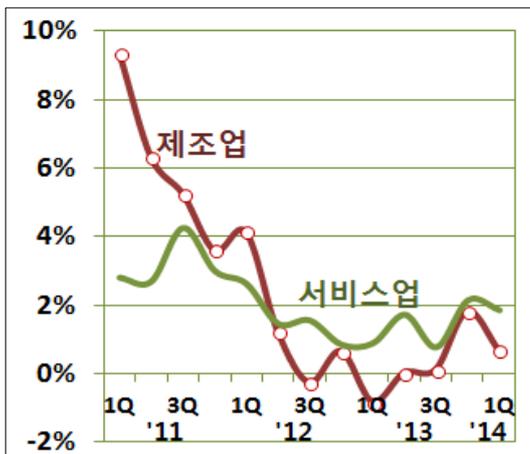
주 : 전년동기대비.

○ 수출 산업의 부진

- 산업적 특성상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서비스업을 상회하는 것이 보통이나 2012년 2분기 이후 2년 동안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서비스업을 하회
 - 통상 제조업의 변동성이 서비스업보다 높은 특성을 가지는 데, 2001년 이후만 보더라도 분기별 전년동기대비 생산 증가율 평균치는 제조업이 5.7%로 서비스업의 3.7%보다 2%p가 높음
 - 그러나 2012년 2분기 이후 최근까지 2년 동안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0.4%로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 평균치 1.4%보다 1%p가 낮은 수준을 기록함
 - 특히, 올해 1분기의 경우에도 제조업 생산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0.7%로 서비스업의 1.8%보다 낮은 상황, 다만 2월과 3월의 경우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서비스업을 소폭 상회함

- 올해 들어 제조업 내에서도 수출 출하 증가율이 내수 출하 증가율을 하회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
 - 제조업에 대한 내수시장 수요 정도를 나타내는 제조업 내수 출하 증가율은 2013년 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1.7%에서 2014년 1분기에 1.5%로 소폭 하락한 반면,
 - 반면, 제조업에 대한 수출시장 수요 정도를 나타내는 제조업 수출 출하 증가율은 같은 기간 2.2%에서 -1.5%의 감소세로 전환됨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제조업 내수 및 수출 출하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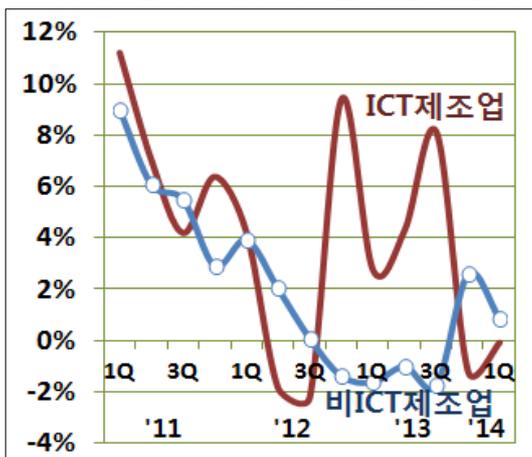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IT 산업의 경기 선도력 약화

- 최근에 들어 전반적인 제조업 경기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ICT 제조업 경기가 非ICT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약화
 - 2012년 4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는 ICT제조업 생산증가율이 非ICT제조업보다 크게 높은 수준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 2013년 4분기와 2014년 1분기에 들어서는 非ICT제조업 생산이 증가세를 기록한 반면 ICT제조업 생산은 감소세를 지속함¹⁾
 - 특히, ICT 산업의 수출증가율은 2월과 3월의 8%대에서 4월에 4.5%로 전체 수출 증가율인 9%에 미치지 못하며, 수출 경기마저도 선도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남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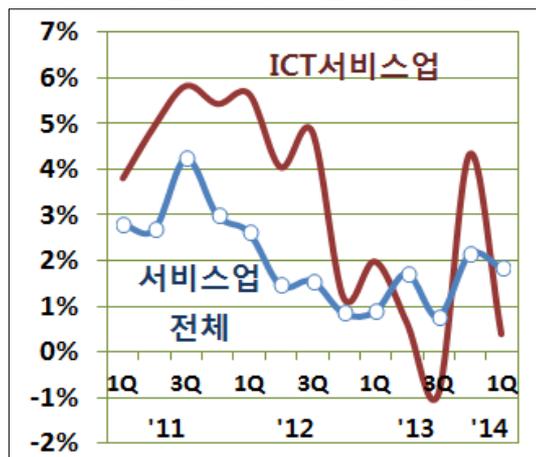
- 2013년 2분기 이후(4분기 제외) ICT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이 전체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
 - 2014년 1분기에 들어 ICT서비스업³⁾의 생산 증가율은 0.4%로 서비스업 전체 생산 증가율 1.8%를 크게 하회함
 - 즉, 전체 서비스업 경기를 ICT서비스업이 아닌 非ICT서비스업이 견인하고 있음

< ICT제조업 및 비ICT제조업 생산 증감률 >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 ICT서비스업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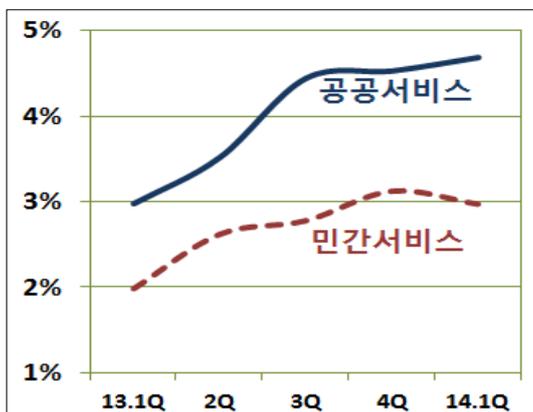
1) 주요 업종별 2014년 1분기 생산증가율은 보면 반도체 제조업(3.8%), 전자부품 제조업(-0.5%),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5.4%), 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9.5%),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1.0%) 등임.
 2) 올해 들어서의 주요 ICT 제품의 수출 증가율은 메모리반도체(4월중 24.4%, 1~4월중 45.8%), 시스템반도체(4월중 4.5%, 1~4월중 -9.1%), 평판디스플레이(4월중-9.8%, 1~4월중 -11.7%), 컴퓨터 및 주변기기(4월중 -5.2%, 1~4월중 -7.7%), 스마트폰 4월중 11.7%) 등임.
 3) ICT서비스업(정보통신기술서비스업)은 컴퓨터 및 통신장비 도매업,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이 포함.

○ 공공수요 산업의 민간수요 산업 경기 견인력 미약

- 서비스업 부문의 수요는 공공 부문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반면, 민간 부문은 수요 확대가 제한
 -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공공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2013년 하반기 이후 전년동기대비 4%대를 지속함
 - 한편, 민간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2013년 3분기까지 2%대에서 4분기 이후 3%대로 소폭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공공 서비스업의 생산 확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모습임
 - 특히, 2014년 1분기에 들어서 공공서비스업과 민간서비스업의 생산증감률 격차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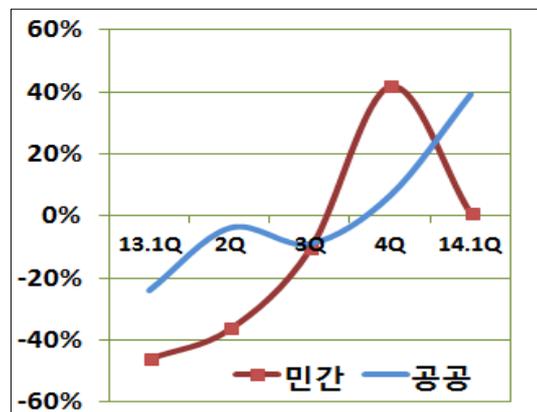
- 건설업과 제조업 부문에 있어서도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보다 빠른 경기 확장세를 시현
 - 올해 1분기 발주자별 건설수주는 공공 부문이 전년동기대비 39.1% 증가한 반면 민간 부문은 0.7% 증가하는 데에 그침
 - 특히, 민간 부문의 건설 수주는 2013년 4분기를 제외하고 2012년 하반기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건설 경기 전반의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음
 - 한편, 투자 활동과 관련이 있는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도 올해 1분기 공공 부문 발주가 185.1% 증가한 반면 민간 부문 발주는 4.8% 증가에 그침

< 공공 및 민간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주 : 1) 공공서비스=공공행정+보건·사회복지.
 2) 전년동기대비.

< 공공 및 민간 건설수주 증감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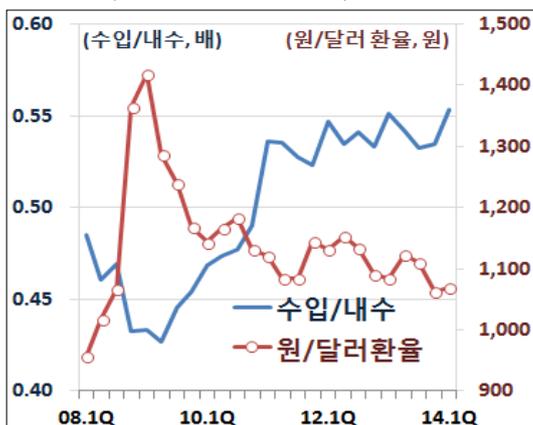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주 : 전년동기대비.

○ 수입 확대가 국내 산업 경기 회복을 제약

-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특히 올해 1분기에 들어 수입침투율이 급상승
 - 원/달러 환율은 2012년 4분기 이후 2014년 1분기까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전년동분기 평균 3% 하락률을 기록
 - 수입(재화 및 서비스)이 내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수입침투율)은 2014년 1분기 55.3%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함
 - 특히, 수입물량증감률(관세청 기준)은 2013년 2분기와 3분기 음(陰, -)의 값에서 2013년 4분기에 1.5%의 양(陽, +)으로 반전된 이후 2014년 1분기 5.7%로 급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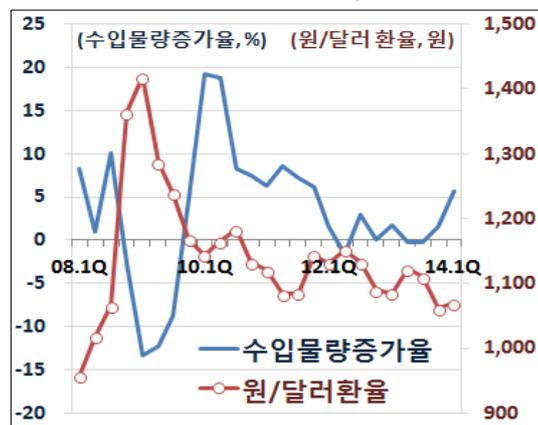
- 품목별로 보면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산-수입산 간 대체가 용이한 소비재의 수입이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
 - 소비재의 1~4월 중 수입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0.6%로 원자재(1.4%)와 자본재(3.0%)에 높은 수준을 기록함⁴⁾
 - 특히 소비재 중에서도 핵심 소비재인 내구소비재의 수입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소비재 수입 확대 추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1~4월 중 내구소비재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19.0% 증가하였으며, 직접소비재와 비내구소비재는 각각 10.9% 및 13.4% 증가함⁵⁾

< 수입/내수 비중과 원/달러 환율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수입물량 증가율과 원/달러 환율 >



자료 : 관세청 수출입동향, 한국은행 국민계정.

4) 주요 재화별 4월중 수입증가율은 소비재 13.2%, 원자재 2.6%, 자본재 6.9%.
 5) 4월중 내구소비재 수입증가율은 전년동월대비 21.3%, 직접소비재와 비내구소비재는 각각 14.7% 및 13.7%를 기록함(특히 내구소비재중에서도 승용차 수입은 4월중 48.8% 1~4월중 55.8% 증가함).

3. 시사점

- (시사점) 수출이 대외 여건의 악화로 경제 전반의 회복을 선도하지 못하는 가운데, 향후 내수 부문마저 침체될 경우 경기 부진 정도가 소프트패치를 넘어 더블딥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수출 경기가 미약한 이유는 세계 경제가 회복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의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원화 강세로 일정 부분 가격경쟁력이 하락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우리나라의 대중국수출/총수출 비중은 2013년 기준 26.1% (홍콩 포함 31.1%)에 달하고 있으나, 2014년 1~4월중 대중국 수출증가율은 2.7%, 4월 중으로는 2.4%에 그침
 -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원/엔(100엔) 환율이 2014년 연평균 1,000원일 경우 다른 조건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총수출은 약 7.5% 감소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음⁶⁾
- 문제는 2분기에 들어서 내수 경기마저 부진할 우려가 있어 수출과 내수가 동반 침체될 경우, 한국경제가 '소프트패치'를 넘어서 '더블딥'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임
- (대응 방안) 내수 회복력 강화와 수출 경기 진작을 통한 소프트패치에서 더블딥으로의 진행가능성 차단에 주력

첫째,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을 통해 더블딥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 통화정책에서는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 재정정책에서는 내수 경기 회복력 강화 및 원화 강세 약화를 도모할 수 있는 조기 집행률 제고 노력이 요구됨

6) 현대경제연구원(2014), “원/100엔 환율, 1,000원 붕괴의 영향과 시사점”, 현안과 과제, 14-19호.

둘째, 소비 및 투자 확대를 도모하여 내수 회복세를 강화시켜야 한다.

- 고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이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는 국가 차원의 '국내 소비를 통한 사회부조운동' 실시
- 집 살 여력 있는 무주택자는 저금리 공유형모기지 확대 등 매매수요 전환 대책, 유주택자에 대해서도 임대, 상속 등을 위한 주택구입 촉진 정책 등으로 주택 매매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을 도모
- 내수 회복의 열쇠인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개혁은 가속화하되, 안전관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규제완화가 가져오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셋째, 환율 안정에 주력하여 수출 경기를 확장시켜야 한다.

- 한국 경제가 수출 침체로 '내외수 복합 불황'에 빠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원화 강세 기조 완화에 주력
 - 특히, 원/달러 환율 시장에서 투기자금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을 가동하여 원화 강세의 과도한 쏠림 현상을 막아야 할 것임
- 기업이 환율 변화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해주기 위하여 외환시장을 안정화 필요
 -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 기업이 대응할 시간적 여력이 부족하여 환차손이나 가격경쟁력 하락 등으로 경영 실적이 악화될 우려가 존재함
 - 이에 외환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미세조정을 통해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야 할 것임 **HRI**

주 원 수석연구위원 (2072-6235, juwon@hri.co.kr)